

# 광주교육청, 高3도 8시30분 이전 등교 금지

## 내년부터 초·중·고교 오전 8시30분~9시 등교 권장 학교장 재량에 맡겨... 학부모 학력저하 우려 반발 예상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오전 8시30분 이전에 등교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시교육청이 8시30분 이전 강제 등교를 금지하고, 8시30분부터 9시 사이에 등교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시간 내 등교를 하되 최종 결정은 학교 여건에 맞춰 학교장이 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입시를 앞둔 고3까지 8시30분 이전 등교를 막음에 따라 학력 저하 우려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교 모든 학생들은 오전 8시30분 이전에 강제로 등교하는 것이 금지된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고3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9시 등교' 또는 '9시 수업'이라고 확정하지 않고 8시30분에서 9시 사이 등교할 것을 권고한 뒤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맞벌이 부부를 위해 8시30분 이전에 개별적으로 자율 등교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월 학부모와 교직원 34만1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초·중·고 등교시간 조정 설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지침'을 조만간 확정된 뒤 일선학교에 공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은 학교별로 등교시간이 들쭉날쭉할 것으로 예상돼 학부모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9시에 수업을 시작하려면 수업준비를 위해 10~20분 전 등교해야 하기 때문에 8시40분~8시50분 사이가 등교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시 등교로 결정하면 수업 준비 시간을 고려해 9시10분~9시20분 사이에 1교시 수업이 시작된다.

현재 광주는 장위국 교육감 취임 이후 '0교시 수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초등학교는 8시30분 전후, 중학교는 8시20분, 고등학교 1·2학년은 8시, 3학년은 7시40분에 등교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 등교 금지를 어겼을 때 해당 학교에 대한 제재 규칙이 없어 실효성

이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고3 수험생까지 8시30분 이전에 등교하지 못하도록 해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광주의 한 고교 교장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3까지 8시30분 등교로 묶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8시30분에 등교하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학력저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8시30분 이전 강제 등교 금지라는 원칙에 최대한 학교장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교시간을 정했다"며 "충분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통해 취지를 알리고, 감사 기능을 강화해 본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3 | 해질 17:20 | 바람 14:31 | 맑음 02:36

**찬바람 '생생'**  
구름 많고 눈이 오겠으나 낮에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눈	-2/2	보성	차차흐려져	-3/2
목포	눈	-1/3	순천	구름많음	-2/3
여수	구름많음	-1/3	영광	눈	-3/2
나주	눈	-3/2	진도	눈	0/3
완도	눈	0/3	전주	눈	-4/1
구례	눈	-4/2	군산	눈	-4/2
강진	차차흐려져	-2/3	남원	눈	-4/1
해남	눈	-1/3	홍산도	눈	2/4
장성	눈	-4/1			

◇바다 날씨

시/도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서	2.0~4.0	북서	1.5~3.0
	남부	북서	3.0~5.0	북서	3.0~5.0
남해	남부	북서	2.0~3.0	북서	1.0~2.5
	남부	북서	3.0~6.0	북서	2.0~4.0

◇생활지수

식중독	32
운동	10
빨래	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0:30	03:19	22:51	15:54
여수	밀물		썰물	
	05:41	11:39	18:03	23:16

◇주간 날씨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	☁	☁	☁	☁	☁	☁
-1/5	-1/4	-2/2	-3/3	-2/6	-1/7	0/8



한자래유 비는 '사랑나눔'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1일 연말연시를 맞아 1병동 현관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진 뒤,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사랑 나눔' 행사를 시작했다.

# 광주교육청 최대 규모 승진인사 '슬렁'

## 부이사관 3명·서기관 5명, 명퇴·공로연수 예정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일반직 간부공무원 승진 인사를 앞두고 광주시교육청이 슬렁이고 있다. 4명의 부이사관(6급) 중 3명이 명예퇴직과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대규모 연쇄 승진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부

이사관 2명(최화룡 금호평생교육관장, 유옥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이 명예퇴직을 희망했다. 여기에 1955년생인 정공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정년퇴직 6개월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가직인 부교육감을 제외하면 광주시교육청 소속 부이사관 4명 중 3명이 현직

에서 물러나 새로 선임해야 한다.

서기관(4급) 5명(조재연 동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김희근 서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염정렬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권영 광주중앙도서관장, 양승진 광주시의회 교육전문위원)도 정년퇴직을 앞두고 내년 1월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하반기에도 3명이 더 물러나게 된다.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서기관을 포함하면 내년 승진 서기관 승진자는 모두 11명이

달하게 된다. 광주시교육청 소속 서기관 19명 중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 간부공무원 승진 인사가 예고되면서 "이번에 승진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갖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승진 경쟁자나 인사 담당자를 근거없이 음해하거나 헐뜯는 역병의 투서도 잇따르고 있다.

감사관실 한 관계자는 "내년 승진 인사를 앞두고 투서가 부쩍 늘었다"면서 "의명으로 오는 것은 열여섯도 않는다. 비위사실이 명확하게 언급된 것만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커피 할아버지의 '감사 遺訓'

## 영암마트 용봉점 직원들 15년간 커피·과일 극진대접 감동 임종 앞둔 한모씨, 딸에게 직접 찾아가 인사 드려라 일러

부친상을 치른 딸은 아버지가 1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리던 마트를 찾아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광주시 북구 영암마트 용봉점 직원 사이에서 '커피 할아버지'로 불린 고(故) 한모씨는 매일 오전 10시 운동길에 마트에 들러 직원이 주는 커피와 제철과일을 대접받았다. 직원이 쥐어준 과일 한 봉지를 들고 동네 경로당을 찾아 이웃과 나눠먹기도 했다.

커피 할아버지와 영암마트의 인연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병상에 있던 부인이 좋아하는 홍시와 참외 등을 사기 위해 마트를 찾았던 커피 할아버지는 8년 전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마트로 발걸음을 하곤 했다.

말수가 적은 한씨였지만 설날이면 마트 직원들에게 신권으로 바꾼 찜질돈 5000원씩을 꺼내 세뱃돈으로 손에

조용히 쥐어주기도 했다.

지난 10월 말께 한씨는 임종의 순간 소소한 기쁨이 되어준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대신 해주라는 말을 남겼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씨의 막내딸은 직원 수 20명에 맞춰 양말을 준비했다. "저희 아버님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정성스러운 선물이었다. <사진>

점장 김성민(40)씨는 "5년 전 효도를 못 다한 채 아버지를 여의어 주위 어른에게라도 잘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직원에게 마트를 찾는 동네 어르신들을 잘 모시도록 교육했다"고 말했다.

/ 박희준기자 bhj@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kwangju.co.kr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티터, 대형제습기

##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펠릿 온풍기의 2종: 비탈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종

원적외선 히터의 11종

대형 제습기의 2종

이동식 에어컨의 11종

범씨 온탕 소독기의 5종

무등산업 (062) 372-7585 / (010) 3601-7701

사·군 취급점 선착순 모집

##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메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625세대만리는만리도 아닙니다. 착한 소장수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임점(251-8216) ·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형 브랜드로 손님들께 꼭꼭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